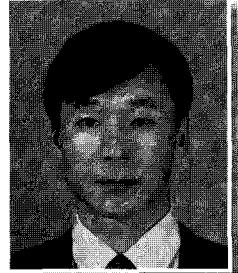


7월의 사슴 사양관리



김 상 우 연구사
축산기술연구소

◇ 암사슴의 사양관리

7월에도 분만과함께 6월에 분만한 사슴은 포유기가 된다. 이시기가 되면 암사슴은 사료의 섭취량이 가장 많고 에너지 요구량이 최고가 되는 시기이며 올해 태어난 새끼들의 일당증체량 또한 생후 3개월까지가 1세 동안에서 가장 높다.

이 시기에는 분만과 동시에 줄어든 자발적인 체중감소를 고영양 사양으로 회복시켜 주어야 하며 포유로 인한 체중감소가 일어

나지 않게 농후사료량을 늘려주어야 한다. 농후사료의 증량은 분만과 동시에 늘려주지 말고 서서히 늘려주어야 고창증의 예방은 물론 농후사료 다급에 의한 설사 등을 예방할 수가 있으며 사료를 늘려줄 때에는 암사슴간에 분만한 사슴과 분만하지 않은 사슴의 마리수를 고려하여 조절해준다.

7월부터 암사슴들은 체중의 3% 정도의 사료를 섭취하므로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이 5:5정도가 되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육에게는 인공유의 급여를 권장하고 싶다.



▲ 7월은 암사슴의 사료섭취량이 가장 많고 에너지 요구량이 최고가 되는 시기

◇ 수사슴의 사양관리

레드디어의 경우 녹용은 하루 100g이상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처음 18개월 동안의 뼈의 성장(34g/일)과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빨성장을 위한 광물질은 뼈성장을 위한 요구량을 훨씬 넘는다. 뼈의 흡수는 빨성장 최성기에 최대가 되며 이시기에 골격의 밀도가 유사한 정도로 적다.

갈비뼈가 최대량의 광물질을 공급하고



▲ 레드디어는 하루에 100g이상 녹용이 성장, 광물질의 추가공급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시기에 “생리적 골다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시기에 광물질의 추가공급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난해 자육을 성육과 함께 사육시에는 합선 성육에 밀려 영양결핍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을 요하며 될 수 있으면 분리사육이 바람직하다. 간혹 성장중인 뿔이 부러져 흔들리는 수가 있는데 상태를 보아 부러진 쪽의 녹용에 상처가 나 있으면 절단해 주어야 하며 외부로 상처가 없는 경우는 그냥 두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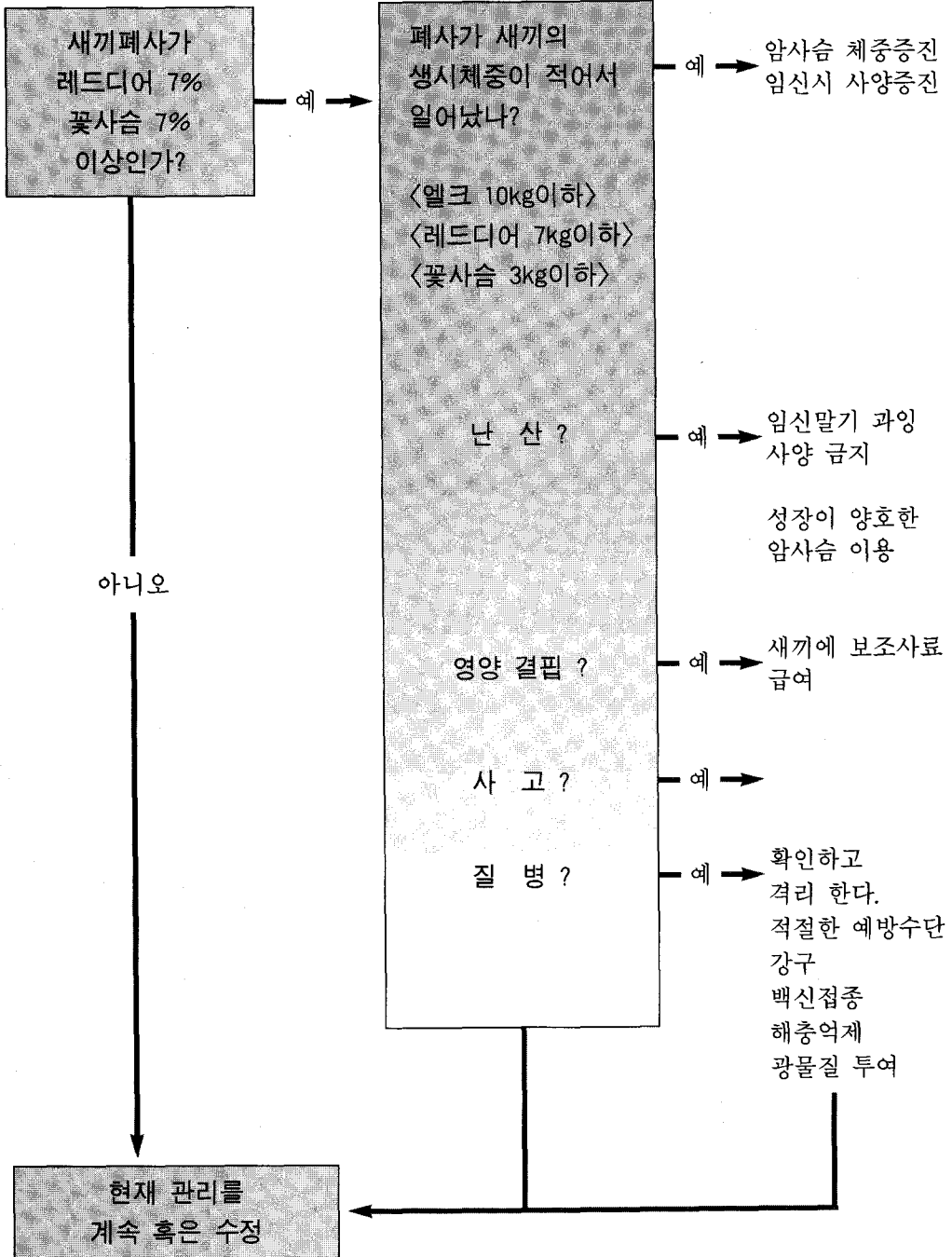
이때 부러진 쪽의 녹용무게가 정상적인 쪽보다 많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뿔이나 육경에 가해진 자극이 녹용의 과성장을 유도하여 나타나며 이것은 다

음 뿔주기 때와 이후 3차년도 뿔주기때 까지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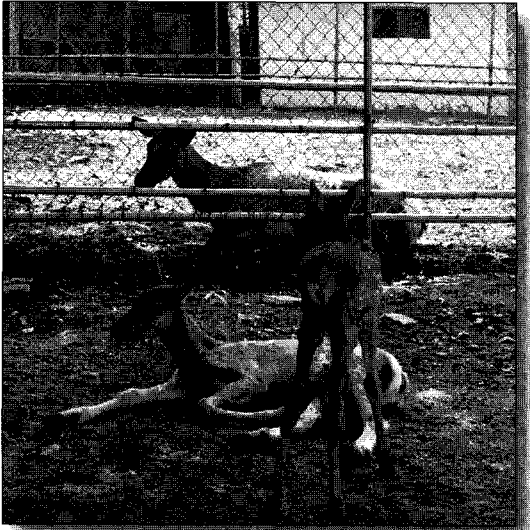
◇ 새끼의 폐사 점검

새끼 폐사의 방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세심한 관찰과 주의는 새끼의 폐사를 줄이는 최선의 길이다. 예를 들어 새끼의 제대염이나 항문 폐쇄 등은 분만의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다.

생시체중이 낮은 경우는 정상적인 체중의 새끼보다는 폐사의 확률이 높으므로 암사슴의 체중을 증진시키고 임신시 사양 증진으로 생시체중이 너무 낮은 새끼가 태어나지 않게 해주며 난산으로 인한 폐사의 경



<그림 1> 새끼 폐사 진단



▲ 세심한 관찰과 주의는 새끼의 폐사를 줄이는 길.

우는 임신말기 과잉사양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임신말기의 과잉사양을 금지하며 과비한 사슴은 분리 사육한다.

영양 결핍에 의한 폐사였다면 새끼에 보조사료(인공유)를 급여해 주며 사고사였다면 사고의 원인을 제거해 준다. 간혹 분만시 사람이 보조를 해줄 경우 어미가 포유를 기피하여 새끼가 죽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난해 어미가 새끼에 포유를 기피한 경우는 가능한 한 자연분만을 하게 놓아두며 포유를 기피하는 경우는 어미를 마취시켜 초유를 짜서 급여한 후 인공포유를 하여야 한다.

제대염의 예방은 사슴사 바닥의 청소와 소독 및 새끼의 배꼽 소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항문을 심하게 활아 폐쇄된

경우는 치료와 함께 새끼의 항문에 기저귀를 채워 어미가 활지 못하게 하며 치료를 실시한다. 분만 시기에 새끼의 폐사를 점검하여 다음 해에는 올해와 같은 자육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점검과 함께 기록을 남겨두는 일은 잊지 말아야겠다.

◇ 여름철 사육관리

새끼의 분만철과 장마철이 겹쳐 새끼의 폐사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장마철에 대비하여 암사슴간에는 새끼집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슴사의 바닥이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사슴의 발목이 빠지는 곳은 미리 대비를 하여 사슴사 바닥의 배수에 신경을 쓴다.

여름철에는 사료의 변질이 잘되는 시기로 곰팡이가 생긴 사료는 과감하게 버리고 특히 물통 청소를 철저히 하여 여름철 소화기 질병의 예방에 힘쓴다. 그늘이 없는 사슴사는 차광망을 설치하여 혹서기에 대비하는 것도 여름철 관리의 하나이다.

한편 물통의 청소에도 신경을 기울여 음수를 통한 질병의 감염을 미연에 차단하여야겠다.

그리고 여름철 조사료는 가능한 한 자가 생산을 하여 생산비를 줄여야겠으며 사슴사 주변의 산야초나 관목류는 사슴에서 기호성이 매우 높으므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조사료 생산에 힘을 씀으로서 양육업의 합리적 경영을 하여야겠다. **양육업**